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2년도 표어 ☉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마5:13-16, 벰전2:11-12)

☉ 행동지침 ☉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인 : 박노철 발행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 마태복음 강해 ☉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 6:5-9)

기도가 중요하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누구도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줄 수 없기에 기도생활이란 그저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편한 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 기도의 대상

우리말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절하게 정성을 드렸더니 하늘이 감동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기도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은 기도입니다. 나무이든지, 하늘이든지, 아니면 그 어떤 신이든 나의 정성이 충분하면 된다는 식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며,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기울여도 절대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정도의 기도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기도를 하시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일 이런 개념으로 열심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의 제단을 쌓는다면, 그것은 불교의 기도, 무속신앙의 기도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시며 가장 먼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2. 삼가야 할 기도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 된 우리들의 인격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과 귀를 의식하거나,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기도는 삼가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듣기 위해 하루 세 번 정해진 시간에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을 보며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받는 것이었고, 그것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더 이상 받을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마음에도 없는 의미 없는 말들을 늘어놓으며 사람들을 의식하여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3. 바람직한 기도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6절).

여기서 골방이란 공간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방이란 주님과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곳, 다시 말해서 운전을 할 때도, 길을 가면서도 주님과 은밀히 대화할 수 있으면 바로 그 곳이 골방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진실한 기도에 즐겁게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본질적으로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기쁜 하나님 앞으로 즐거이 나오시고, 그 분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기도의 기쁨을 항상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Do Pray Like This!

(Matt. 6:5-9)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Everybody knows how important prayer is. However, in fact, because no one can check our life of prayer, our life of prayer can become an inconvenient truth in which we have no other choice in life.

1. The target of prayer

There is an old saying in Korea, “Sincerity moves heaven.” It means that because one gave sincerely from the heart, heaven was moved. But the prayer of Christians is not based on the concept of “Sincerity moves heaven.” In the world, the target that is prayed to is not very important. The world may believe that it doesn’t matter whether the object is a tree, the sky, or even any supposed god, as long as the prayer is given with sincerity.

However, we clearly pray to God as the trinity. No matter how sincerely we pray to God, we are absolutely not able to pray so far as we move our God to be moved. If we heap up a prayer at the altar with this concept without missing a day, it is not any different from a Buddhist prayer or a shamanistic belief prayer.

Jesus gives and tells us His Lord’s Prayer, “This, then, is how you should pray: “Our Father in heaven, -----.” And He first of all teaches us the target clearly, to whom we must pray. It is the prayer that we have personal relations with God respectfully and enjoy it. This is the core of prayer that is revealed in the Bible.

2. The prayer that you refrain from

In so far as prayer is a personal conversation between God and children to our Father, God, we must refrain from prayer that is for the sake of others eyes and ears, and to get their complement or respect.

At the time of Jesus, the Pharisees would have prayed in a Synagogue or on the open street, three times a day for a limited time in order to hear the people’s compliments. Jesus said by looking at them, “They had already received their reward.” The purpose of which they wanted is to get respect and a complement from the people and because they already received their reward, they did not have anything to receive from God any more.

Besides, we must not say a prayer repeatedly. The Pharisees used to go on and on without meaning by simply being concerned about others watching when they prayed.

3. The desirable prayer

“But when you pray, go into your room, close the door and pray to your Father, who is unseen.

Then your Father, who sees what is done in secret, will reward you” (v. 6).

Here ‘the room’ does not mean the spatial place. ‘The room’ is the place where you meet alone with the Lord, that is to say, when you drive and walk on the street, if you can converse with the Lord in secret, that is just ‘the room’. We must always pray to God with the truthful mind and belief that it will be answered by God. God knows what we need before we ask something and answers our truthful prayer, and blesses us joyfully.

My beloved Christians!

Prayer is not the only way to receive God’s blessing but through prayer we share a close relationship of love with our etemal Father, Creator God, Father who loves us to death, and is essentially full of joy.

By coming to the joyful God during a relationship of love with Him,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always enjoy the joy in the name of Jesus.

여름 성경학교 · 수련회 은혜 안에 계속돼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 -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 (마5:13-16, 뱀전2:11-12) -

부서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청년1부	8.15(수)~17(금)	아가페타운	부르심	박노철 목사 박진아 목사
청년2부	8.15(수)~17(금)	아가페타운	KNOWING GOD	박노철 목사 오세광 목사
디아스포라	8.2(목)~4(토)	아가페타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박광일 목사
에바다	7.31(화)~8.1(수)	아가페타운	세상의 빛과 소금	임규현 목사
신촌가정부	8.14(화)~15(수)	아가페타운	빛과 소금된 가정	한상은 목사

2012년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오늘까지 교육1국 유아부·유치부·유년부·초등부가 지난 27일부터 시작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하며 에바다부가 31일(화)~8.1일(수), 디아스포라부가 8월 2일(목)~4(토)까지 열린다. 많은 성도들의 관심바란다.

인도네시아 단기선교팀 파송

8.2(목) ~ 8.11(토), 자바섬 말랑, 바뚜, 라왕, 토사리로

2012 인도네시아 단기선교단(단장 : 김규태 집사이) 8월 2일(목)에 선교사역지 인도네시아로 떠난다. 지난 주 찬양예배 때 파송식을 마치고 캄보디아 단기선교단은 23일(월) 은혜 중에 출국하여 현재 사역중이다.

이들의 사역과 건강, 입국절차 및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길 많은 성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2012년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

8월 12일(주일) - 찬양예배시간에

우리교회 장학회(회장 이영기 장로)는 2012년 하반기 장학생을 선발하였다. 선발된 학생들은 총 45명으로 본인의 믿음이 신실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교회 봉사에 모범적인 학생들로 총 393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서울교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나 이 나라를 이끄는 기둥들이 되도록 기도한다.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할 때에 장학금을 입금받을 통장의 계좌번호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장학금 수여식때 단정한 복장 또는 정장으로 통일한다.

장학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 1. 신학생 - 5명
김종일, 허승일, 박다형, 최인애, 이신우
- 2. 일반장학생
<대학생>-26명
천예은, 이한나, 황나리, 박수진, 김재욱, 김연진, 임아름, 최경미, 이신영, 이한호, 김준석, 마건영, 임혜준, 박소혜, 유윤지, 이누리, 김문범, 한성애, 이혜진, 유은수, 주소영, 임주현, 정상준, 조인주, 박영정, 정진영
<디아스포라부>-7명
이현서, 이영화, 양리인, 홍정원, 박춘희, 이영희, 권영숙
<고등부>-1명 김태현
<교역자·선교사자녀>-2명 : 정에스더, 정해린
<호산나전문대학>-3명
최미리, 노성준, 문병훈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57]

(문 54) 선지자 발람은 모압 왕 발가의 사신들에게 이르기를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처사를 보내시어 발람을 왜 죽이려 하셨나요? (민22장)

답) : 하나님은 그의 천사를 보내시어 발람에게 발람이 원하는 바 즉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횡하는 바 즉 야곱의 언약의 백성에게 축복하도록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발람의 초청에 응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민22:13) 그러나 발람은 두 번째 발람이 보낸 사신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그 밤에 물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부와 명예를 탐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발람의 사신들을 머물게 한 발람은 마침내 하나님의 본의 아닌 허락을 받아내고 모압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나 모압으로 가되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른 말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무와 욕망 사이에서 발람의 영혼은 심한 갈등을 일으켰고 하나님은 준엄하게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은 그의 길을 막으시고 그를 죽이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귀가 피하였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에게 나귀의 입을 빌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가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발람은 모압 왕 발람의 유혹에 처음부터 탐심으로 끝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실 리가 없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 한 것은 옳지 않은 일에 미련을 가진 자의 어리석음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옳지 않은 소원을 금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끝까지 그 악한 소원을 품으면 그로 하여금 그 길을 가도록 버려두십니다. 발람의 경우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발람은 칼을 뽑아들고 자기 앞을 막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탐심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짐승도 볼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주 계속)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대잔치

제1 · 2스데반회주관 / 70인전도대 협력



만민에게 전도 - 인도네시아 단기선교를 떠나며

내 증인이 되리라



김규태 집사(2012단기선교단 단장)

뜨라마까지!(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단기선교를 위해 3월부터 37명의 단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오늘까지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의료팀, 미용팀, 교육팀, 선교팀으로 나누어 준비하고 확고하고 열심히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단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바자회를 통하여 온 교회 성도님들께서 단기선교팀을 열렬히 후원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벅찬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호흡을 가다듬고 10일간의 선교 여정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곳 인도네시아의 자바섬 작은 마을 말

랑, 바뚜, 라왕, 토사리 등은 손꼽아 우리 선교팀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부족이 족장과 각 마을의 지도자들이 막강한 권한으로 마을을 통치하며 이슬람교의 뿌리가 깊게 박혀있는 인도네시아를 들어가는 저희들은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와 같이 비장한 마음으로 장도에 오른다.

영양부족과 각종 질병으로 허덕이는 그들에게 질병의 치료 뿐 아니라 심령에 복된 양식까지 더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선교팀이 주제성구인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의 말씀처럼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십자가 군병이 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박경정 집사(의료선교회장)

서울교회 의료선교회는 2009년 캄보디아 단기선교 사역을 시작으로 말라위, 방글라데시 단기선교 사역에 동참하였으며, 금번 인도네시아

단기사역에도 의료선교회원을 중심으로 의료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참가 단원은 박경정, 정현구(이상 치과), 김주년(안과), 노제현(안과), 이지동(정형외과), 민효영(내과)과 특별히 올해에는 의과 대학생 5명이 동참하게 됩니다.

개발도상국에는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생애 처음으로 의사를 만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의료를 통해 섬기면 기존의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훨씬 힘을 얻을 수 있고, 복음이 확장된다고 합니다. 이런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가족과의 휴가여행 대신 진료도구를 싸 들고 선교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뜨거운 여름 날씨보다 더 뜨겁게 우리의 심령을 달구실 성령의 역사를 인도네시아에서 보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더 많은 의료선교회원들이 이 복된 사역에 동참하기를 기대하며,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조 직

- 지도교역자 : 유문건 목사
- 교육전도사 : 허승일 전도사
- 단 장 : 김규태 집사
- 총 무 : 이학명 집사
- 서 기 : 이영재 집사
- 회 계 : 이명아 권사
- 단원 : 이자혁 권사, 이은희 권사, 최종희 집사, 최금숙 집사, 문금희 집사, 문옥일 집사, 정진영, 이성화, 최경미, 차주호, 최근우, 김문범, 김휘, 이신영, 김민선, 오동윤, 김현지
- 의료선교팀 팀장 : 박경정 집사
- 단원 : 노제현 집사, 이지동 집사, 정현구 집사, 김주년 집사, 민효영 집사, 노주형, 이주영, 이선우, 안새미, 이신혜, 김영철, 김지홍

개인 기도 제목

- 허승일 전도사 : 지혜와 건강주사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 김규태 집사 : 단원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위험과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시며 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 이은희 권사 : 주님께서 분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지상명령을 받들어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 이자혁 권사 : 환경을 넉넉히 극복하며 기도로 협력하고, 섬김의 열매, 순종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 이명아 권사 : 인도네시아를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로
- 최금숙 집사 : 단원 모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



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선교 일정이 되게 하시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교되게 하옵소서

- 최종희 집사 :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사역 되게 하옵시며 오직 주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옵소서
- 김주년 집사 : 이번 인도네시아 선교를 통하여 의료 선교의 확실한 비전을 보여 주옵소서
- 정현구 집사 : 단원 모두 건강을 지켜주시고 인도네시아인들을 사랑으로 품고 의료사역에 걸림돌이 없게 하옵소서
- 노제현 집사 : 동행하는 아들 주형과 주 안에서 더욱 친밀해지기를 원하며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 이영재 집사 :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편지가 되게 하옵소서
- 김지홍 : 선교 여정을 지켜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 최근우 :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서로 화목하여 하나가 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인도네시아에!

기간: 8월 2일(목)~ 11일(토)



▶ 캄보디아 단기선교 보고

주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송행의 집사(캄보디아 단기선교단원)

은 교회의 기도 가운데 단기선교 단원 모두는 이곳에 잘 도착했습니다.

도착 다음날 우리 일행은 임흥수 집사님 인도 가운데 새벽기도로 하루를 열며 앞으로의 선교사역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설교와 지도를 통해 이곳에서 어떻게 사역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와 현지 상황을 자세히 듣고 좀더 구체적인 선교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의 틈을 이용해 캄보디아인들의 삶과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킬링필드와 왕궁을 둘러보고 러시아마켓에서 장을 본 후 2시간 반을 달려 이번 사역지인 캄퐁츠낭으로 향했습니다. 다음날 캄포



츠낭의 새로 지은 교회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감격스런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모델로 한 아버지학교, 롯을 모델로 한 어머니 학교, 어린이

학교 등 본격적인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언어와 풍습은 달라도 주님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입니다. 이날 저녁 7시 캄퐁츠낭 교회에서 수요일예배 드리는 것을 끝으로 이날 사역을 무사히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사역 점검을 하므로 하루 일과를 마쳤습니다.

짧은 기간이나마 선교 사역을 하므로 이름도 빛도 없이 오지에서 복음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생각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곳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I love Cambodia!

아자아자, 소금처럼! 아자아자, 빛처럼!

사랑부 여름 성경학교 은혜중에 마쳤어요~~~



▶ 에바다부 수련회 초대인 글

세상의 빛과 소금!

안인호 집사(에바다부 부장)

청각장애인 부서인 에바다부가 7월 31일~8월 1일 아가페타운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 주제로 여름수련회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해 주시며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명령해 주셨습니다. 스스로를 녹여서 소금의 맛을, 자신을 태워 빛을 비추는 등불의 역할을 하지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라는 말씀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는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요즘 여러 분야에서 자신의 자리를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답다'라고 불러주는 때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쟁이'라고 비하당하여도 '교회다니는 사람답다' 기독교인 답다고 인정받았던 시절을 상기합니다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가야했고, 아내를 두번이나 누이라고 말해야 할 정도로 녹녹하지 않은 나그네

삶을 산 아브라함, 외국에 팔려가서 종노릇하고, 모함을 당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는 요셉, 왕자의 삶에서 도망자로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모세 이들의 고난은 보지않고 성공적인 모습만을 기억하고 부러워하지는 않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하고 부활 승리의 십자가만 얻기를 원하는 지? 돌아보는 수련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1박2일의 짧은 수련회기간이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충만하고 넉넉히 부여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겸손히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뜨거운 기도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등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8월 4일(토) 사랑의 쌀 운동 월례모임과 울림바타르대학교 이사회에서 설교한다.
- 특담: 9교구 Patrick Le Prince Marius 이은유 집사 (이관규 장로 이순영 권사 장녀 가정)
- 개업: 서순희 권사(14교구) Atom美(에터미): 화장품, 건강식품 및 생활용품, 개포주공5단지 상거층, 010-7361-3412 이인영 성도(청년2부) 주식회사 아이디어아보브(IDEABOVE) 사무실 확장 이전(송실대 정주영 창업 캠퍼스), 02-829-8285
- 주간식당봉사: 루디아전도회(7.29) 뱀뱀전도회(8.5)
- 금주의 식사: 최성을 집사 박진희 집사 가정 (인천대 총장 세위주심 감사하며)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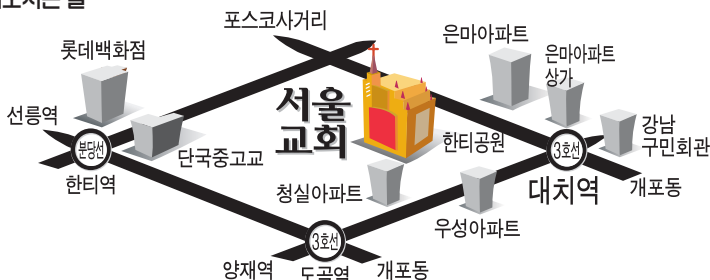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트리니티 신학교 목회학 박사 과정 및 미주집회 인도차 출국 하신 박노철 담임 목사의 영육간 강건함을 위해
2. 계속 이어지는 에바다부와 디아스포라부 여름수련회를 통해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3. 8월 2일 파송되는 인도네시아 단기선교단이 성령의 보호하심 가운데 복음의 열매를 맺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